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참여자의 만족도 제고방안 연구

구은자¹, 안성식^{2*}

¹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²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식조리경영학과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n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Eun-Ja Koo¹, Sung-Sik Ahn^{2*}

¹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Planning &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²Department of Foodservice and Culinary Management Kyung Hee Cyber University

요약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즐기는 문화활동을 의미하며, 개인활동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생활문화 활동은 삶의 질 제고와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제로도 작동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문화정책의 중요영역으로 설정되었고, 생활문화 공동체인 동아리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성군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동아리 참여자들의 생활 문화활동 만족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체수준의 요인은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수준에서는 신체적요인인 건강회복과 체력증진, 환경요인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 시설 및 장소의 흥미성/접근성/외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활동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첫째,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유지강화 영역인 심리적요인과 사회적요인, 휴식적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두 번째, 동아리활동에 대한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중점개선 영역을 우선순위로 개선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iving culture signifies cultural activities enjoyed by residents in their daily lives and allows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beyond individual activities. Living culture activity can also serve as a mechanism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communities. Recently, living culture activity has been established as an important area of cultural policy and club activity. Due to this, the living culture communities are drawing much attention.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satisfaction and importance of living culture activities of club participants to promote the living culture in Hongseong-gun. As a result, factors that on an overall level increase satisfaction with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have been identified as phys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an individual level, these factors included physical factors such as health recovery, physical improvement,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cleanliness of facilities and locations and interesting features/accessibility/appearance of facilities. Firs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management of psychological factors which are the maintenance reinforcement areas with both high satisfaction and importance, social factors, and resting factors is necessary. Second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reas of high importance for club activities with low satisfaction should be improved as priority areas.

Keywords : Living Culture, Living Art,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Satisfaction, Club Activities.

*Corresponding Author : Sung-Sik, Ahn(Kyung Hee Cyber University)

email: sungsik@khcu.ac.kr

Received July 8, 2021

Accepted October 1, 2021

Revised August 6, 2021

Published October 31, 2021

1. 서론

전 세계인의 삶의 양식을 바꾼 코로나19(Covid 19)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 등 최근 국민들의 삶의 양식과 문화생활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일상에서 문화소비의 능동적 문화주체라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문화예술 관람자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와 매개자로 향유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생활 속 문화활동의 영역이 취미공동체를 넘어 지역공동체로 분화하고 문화적 다양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1].

삶의 양식 변화에 따른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은 정책 방향의 전환과도 함께한다. 문화기본법(2013.12.10)은 모든 국민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제정(2014.01.28.)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정책영역으로서 생활문화를 제도화했다. 여기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제7조제1항).

생활문화 활동이 문화정책의 중요영역으로 설정되었고 크게 개인 활동과 공동체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생활문화 공동체인 동아리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은 문화예술 관람뿐만 아니라 창작과 발표, 교육, 봉사 등을 포함하면서 개인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넘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기 때문이다[2]. 활동의 방식에 따라 문화예술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티 예술형, 마을 만들기형 등 주체와 활동영역, 동기 등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나눌 수 있다[3]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문화생활을 넘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동아리 특성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참여율이 5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하고, 향후 참여의향이 49%에 이른다. 동아리 활동은 창의성과 소통능력 등 자아존중감 향상과 삶의 만족도 증대에 도움이 되며, 타인의 이해와 신뢰형성을 도와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아리 활동 참여자들은 개인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공헌이나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사회에 공헌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4].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동아리 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활동 네트워크나 기회를 제공하고 공간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지역마다 고유의 문화적 특성, 동아리 활동 특성 등이 반영된 지원 시스템과 동아리의 자생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 동아리활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흥성지역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와 확산을 위해 동아리 활동 참여자의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통해 생활문화 활동 만족도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활문화 활동 개념

생활문화 활동이란 생활 속에서 실행되는 단순 문화예술 관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 발표, 교육, 봉사 등을 포함하며 개인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단순 향유가 창의적 활동으로 전환되고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생활문화 활동은 언어, 예술, 문학과 함께 전통, 가치체계, 생활양식 등에 포함된 행위로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문화 해독력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5]. 본 연구에서 생활문화란 소수 전문예술가의 활동이 아닌 '일반인 모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예술 활동'으로, 문화예술관련 동아리·동호회·1인 예술가와 다양한 주제의 예술, 역사, 인물, 전통, 교육, 취미활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정의하였다.

2.2 생활문화 활동 유형과 특성

과거 지식과 능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만의 것이었던 문화예술이 정부 문화정책과 더불어 서울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문예술중심에서 시민생활예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사람들이 결속되고 연결되어지고 있다[6, 7]. 즉, 생활문화 활동은 경제발전이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문화예술이나 문화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예술지상주의와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공동체에 구성된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라 할 수 있다[8].

생활문화 활동은 구성원들의 예술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전문 예술가들과 연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므로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할뿐만 아니라 더불어 예술인과 아마추어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적극적인 생활문화 활동은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공헌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9, 10]. 생활문화 활동은 크게 개인활동과 공동체 활동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생활교류적 문화활동, 예술향유적 문화활동, 자기개발적 문화활동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생활교류적 문화활동이란 사회적 교류활동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 농촌체험 등의 사회적 문화활동과 전통 교육·보존의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예술향유적 문화활동이란 전시회, 음악회, 콘서트, 페스티벌, 공연, 독서회, 캠프 등으로 구분되는 행사참여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개발적 문화활동이란 기술자격이나 예술 관련 교육과 같은 개인 취미·오락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생활문화 활동은 예술, 기술, 교류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활동으로 예술장르인 문화, 미술, 음악, 무용, 사진 등의 해당하는 문화활동이라 할 수 있다[11, 12].

또한, 생활문화 활동은 예술가와 주민이 협업하는 활동 방법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티 예술형, 마을 만들기형으로 범주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화예술 교육형은 일상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발적 예술형은 주민들의 변화를 위하여 일상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발적 예술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 예술형은 주민들이 예술가와 함께 일상적이거나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커뮤니티예술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형은 주민들이 일상적이거나 자발적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위한 협력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동체들은 주제·영역·동기에 따라 다르게 범주화 될 수 있다[13].

2.3 생활문화 활동 만족도

생활문화 활동 만족도란 일반적인 생활문화 활동 경험이나 상황에 대하여 개인이 형성하거나 획득되는 긍정적인 인식 또는 주관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활문화 활동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영역과 주관이 크게 차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다[14]. 또한, 생활문화 활동의 구성요소도 상호 유사한 내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 활동유형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분류기준의 다양성으로부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분류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Beard & Regheb(1980)[15]이 개발한 여가활동의 구성요소를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생활문화 활동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Psychological) 요인이라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흥미를 느끼며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시험하게 되면서 성취감 및 자부심 등을 느끼게 되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6-18]. 둘째, 교육적(Educational) 요인이라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호기심 욕구를 충족하여 자신, 타인, 사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하여 얻게 되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7, 19]. 셋째, 사회적(Social) 요인이라 생활문화 활동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타인 또는 타 집단과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느끼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5, 17]. 넷째, 휴식적(Relaxational) 요인이라 스포츠나 놀이와 같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만족이라 할 수 있다[14, 21]. 다섯째, 신체적(Physiological) 요인이라 신체피로 회복과 건강유지, 근력강화 및 체력단련 등과 관련된 만족이라 할 수 있다[15, 16]. 마지막으로 환경적(Aesthetic) 요인이라 생활문화 활동이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의 미적 상태라 할 수 있다[22].

3. 실증연구

3.1 연구방법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활용하였고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간의 피어슨 적률 상관관계(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였고, 만족도를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지역주민 생활

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2 연구과제 및 절차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통해 첫째, 유지/강화 영역, 둘째 지속관리 영역, 셋째 점진 개선 영역, 넷째 중점 개선 영역을 검토한 후에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 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실증분석 결과

4.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 126명(34.4%), 여성 240명(65.6%)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많았고, 연령은 20대 52명(14.2%), 30대 66명(18.0%), 40대 74명(20.2%), 50대 114명(31.1%), 60대 58명(15.8%), 70대 이상 2명(0.5%)으로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하였다.

4.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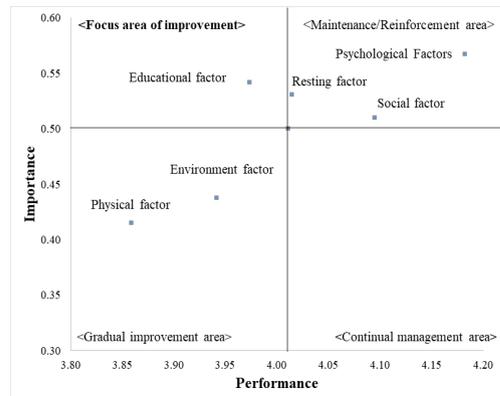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인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와 Bartlett의 검정결과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95로 0.8보다 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근사 카이제곱 값(χ^2)이 5333.40, 자유도 190,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한 표본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측정요인의 경우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신체적 요인 3개 문항씩 휴식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4개 문항씩 묶여 총 6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 누적 분산 총합이 85.40으로 85.40%의 설명력을 보였기 때문에 타당성이 충족됨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측정항목의 Cronbach의 알파 값이 0.90, 교육적 요인 0.88, 사회적 요인 0.92, 휴식적 요인 0.90, 신체적 요인 0.91,

환경적 요인 0.95로 0.7을 초과하여 신뢰성이 검증됨을 알 수 있다(Nunnally & Bernstein, 1994).

4.3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석결과

4.3.1 전체수준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지역수준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첫째,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둘째 지속관리 영역은 없었으며 셋째, 지역수준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영역 중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점진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넷째 중점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교육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Items	X-axis	Y-axis	IPA Analysis Results
	Performance	Importance	
Psychological factor	4.18(+)	0.57(+)	①Maintenance/Reinforcement area
Educational factor	3.97(-)	0.54(+)	②Focus area of improvement
Social factor	4.09(+)	0.51(+)	①Maintenance/Reinforcement area
Resting factor	4.01(+)	0.53(+)	①Maintenance/Reinforcement area
Physical factor	3.86(-)	0.42(-)	③Gradual improvement area
Environment factor	3.94(-)	0.44(-)	③Gradual improvement area
All	4.01	0.50	

※ ① Maintenance/Reinforcement area: High(+), Low(+)

② Focus area of improvement : High(+),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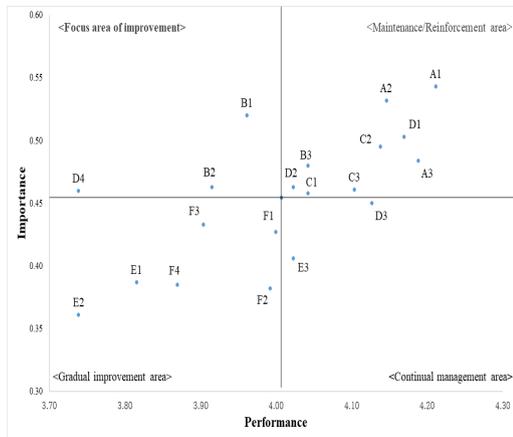
③ Gradual improvement area : Low(-), Low(-)

④ Continual management area : Low(-), High(+)

Fig. 1. Results of IPA analysis to revitalize local residents'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4.3.2 개별수준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별수준의 항목은 첫째,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심리적 요인인 흥미성, 자부심, 성취감이고 교육적 요인인 이해심/배려심,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교류, 인간관계 유지, 친절성, 휴식적 요인인 정서적 안정과 휴식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속 관리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휴식적 요인인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적 요인인 활력회복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영역 중에서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점진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신체적 요인인 건강회복과 체력증진이고, 환경적 요인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 시설 및 장소의 흥미성, 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시설 및 장소의 외관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점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되는 요인은 교육적 요인인 지식습득과 신기성이고, 휴식적 요인인 시간적 여유로 나타났다.



- Psychological factor		Mark
A1	Interest	①
A2	Self-esteem	①
A3	Sense of accomplishment	①
- Educational factor		
B1	Acquisition of knowledge	②
B2	Novelty	②
B3	Understanding/Consideration	①

- Social factor		
C1	Social interaction	①
C2	Maintaining human relationship	①
C3	Neighborliness	①
- Resting factor		
D1	Emotional stability	①
D2	Rest	①
D3	Stress relief	④
D4	Spare time	②
- Physical factor		
E1	Health recovery	③
E2	Improvement of physical strength	③
E3	Revitalization	④
- Environment factor		
F1	Cleanliness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2	Interesting features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3	Accessibility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4	Appearance of facilities and locations	③

Fig. 2. Results of IPA analysis to revitalize local -residents' living culture club activities at individual level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만족도와 심리적 요인, 교육적 요인, 사회적 요인, 휴식적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체 수준의 요인은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났고, 개별수준에서는 신체적 요인인 건강회복과 체력증진이고, 환경적 요인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 시설 및 장소의 흥미성, 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시설 및 장소의 외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신체적 요인 중에서도 건강회복과 체력증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환경적 요인인 청결, 흥미성, 접근성과 외관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의 개념과 다양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는데 학문적 시사점을 제기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유지/강화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지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문화 동아리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이면서 만족도를 더욱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중점 개선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더욱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 및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강사 및 관계자 양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만족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점진 개선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요인들부터 개선한 뒤 점진적으로 개선 및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 지속 관리 영역에 포함된 요인들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이 요인들에 대해 과도하게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타 요인들에 대해 더욱 집중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E. Na, *A Study on Satisfaction of Community Culture Participants*,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8, 2019.
- [2] K. Y. Yang, Measures to enhance the role of living culture facilities for the formation of living cultur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25, 2014.
- [3] Y. J. Kang, E. K. Kang, S. H. Park, B. S. Shim, S. J. Yu et al. *Life art: Art that changes life, life that changes art*, Salrim Books, 2017.
- [4] S. H. Baek, Characteristics and Policy Suggestions of the Living Culture and Arts Club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p.1-21, 2017.
- [5] S. H. Song, *A Study on the Cultural Assessment of Buchion's Citizen Cultural*,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7.
- [6] Bourdieu, P.,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7] H. S. Yang, Status and tasks of support policies for the expansion of 'art in life,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22, 2009.
- [8] S. H. Jeon, Establishment of culture city positioning strategy and development of executable program,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Republic of Korea, p.33, 2010.
- [9] S. H. Baek, D. S. Ra, Y. J. Jo, A plan to revitalize the Living Culture and Arts Club in Seoul, The Seoul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187, 2016.
- [10] H. Oh, *An Analysis and Activation Plan of the Life, Culture & Arts Community Support Project in Cheongju*,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p.51, 2018.
- [11] K. H. Jo, A Basic Study for the Survey of Living Culture Activities,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Republic of Korea, p.28, 2015.
- [12] S. E. Lee, *A Study on the Support Policy for Activating Living Culture and Arts in Daejeon: Focused on Daejeo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pp.12-17,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2017.
- [13] K. S. Min, *The Meaning of Social Practice for Older Volunteers Who Participate in Community Culture Activities*, Ph. D dissertation,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pp.33-37, 2016.
- [14] Y. R.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sport for all and leisure satisfaction*, Ph. 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p.53-56, 1997.
- [15] J. Beard, M. G. Ragheb,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2, No. 1, pp.20-33, 1980.
<https://doi.org/10.1080/00222216.1980.11969416>
- [16] R. Kraus, *Recreation and leisure in modern society*, NY: Appleton century crofts, 1971.
- [17] J. Dumazedier,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1974.
- [18] J. H.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for All Participation in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the Rural Elderly*, Ph. D dissert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pp.81-87, 2008.
- [19] C. Brightbill, *Man and a Philosophy of recreation*,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1.
- [20] J. Dumazedier,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Elsevier, 1974.
- [21] G. Patrick, *The Pyschology of relax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77.
- [22] A. Rutledge, *Anatomy of a park: the essentials of recreation are Planning and design*,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71.
- [23] J. C. Nunnally, I. H. Bernstein, *The Assessment of Reliability. Psychometric Theory*, 3, pp.248-292, 1994.

구 은 자(Eun-Ja Koo)

[종신회원]



- 200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협동과정(공연예술학석사)
- 2016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학과(예술경영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예술기획, 예술경영, 예술교육

안 성 식(Sung-Sik Ahn)

[종신회원]



- 2003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7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2009년 4월 ~ 현재 : 경희사이버대학교 외식조리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경영전략, 마케팅, 마케팅리서치